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2-11>

2002. 2. 6

KIEP 북경사무소

엔저 지속의 배경과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중국내 전문가 시각을 중심으로 -

□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**인민은행 부행장**을 비롯한 중국내 금융전문가들¹⁾이 엔저 현상의 요인 및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책을 제시하였음.

- 전문가들은 **엔저 지속의 배경으로 일본 국내정치 요인, 중국 견제** 등을 지적하였으며, 엔저의 지속이 일본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음.

-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엔저 지속은 중국의 대외교역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, 중국은 향후 **인민폐환율의 변동폭 확대** 등을 통해 **국제금융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** 할 것이라고 강조함.

1. 엔저 지속의 배경과 엔화 환율 전망

□ 일본 정부의 엔저 허용 배경으로는 경제적 실익, 국내정치 요인, 중국 견제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음.(崔孟修 박사).

- 일본정부는 엔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입억제 및 디플레이션 해소를 기대하고 있음.

1) 李早航(인민은행 부행장), 余永定(세계경제·정치연구소 소장), 張曙光(天則경제연구소 소장), 崔孟修, 梁春滿, 馬拴友(사회과학원 재무경제연구소 박사)

- 고이즈미 정부는 일본내 우익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지지세력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.

- 일본은 엔저 허용을 통해 중국의 수출과 인민폐 안정 유지에 타격을 주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.

□ 엔저 허용 내지 유도는 일본정부가 자신의 정책 실패를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(李早航 부행장).

- 일본경제가 구제불능의 침체 상태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, 실제로 일본의 상당수 산업은 여전히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

□ 일본정부는 평가절하를 통해 수입억제 효과 및 디플레이션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, 그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음(張曙光 소장).

□ 현재는 엔/달러 환율이 상승추세에 있지만 환율이 130엔대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(余永定 소장).

-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내에서도 평가절하의 무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며, 미국도 엔화의 과도한 평가절하를 묵인하지 않을 것임.

2.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

□ 엔저 현상에 대해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지속과 신축성 있는 환율제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것임(李早航 부행장).

- WTO 가입은 유효수요의 확대와 체제 개혁에 긍정적인 충격을 줄 것인바,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함.

- 현재 거의 고정화된 환율체제를 더욱 신축성 있는 환율제도로 전환하여 필요

시에는 인민폐 환율을 적당히 평가절하 해야 할 것임.²⁾

□ 금후 중국은 ‘인민폐 평가절하 불가’ 등을 굳이 천명할 필요가 없으며,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엔/위엔화 환율의 상한치를 설정해 두어야 함(張曙光 소장).

- 현재의 엔저 현상을 계기로 아시아지역내 금융협력에서 중국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.

□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거시정책수단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, 앞으로는 환율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(梁春滿, 馬拴友 박사).

- 이를 위해서는 인민폐 환율의 변동폭 확대를 포함, 현재의 환율제도와 정책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.(***)

2) 인민은행 부행장급의 고위인사가 공개적으로 평가절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수년 이래 이번이 처음임. 그러나 李행장의 전체적인 발언 맥락에 비추어 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의 성격이 농후하며, 환율 변동폭 확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